

몽골농업정책과 농업경제의 구조적 변화

이혜식* · 정호진**

(*몽골국립농과대학 교수 · **건국대학교 강사)

A Transition of the structure of Mongolian Agricultural Policies and Economy

Hae-Sick Lee* · Ho-Jin Chung**

*The National Agricultural University of Mongolia, **Kon-Kuk University

적 요

몽골은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농업정책 및 농업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도에 255개에 달하던 협동농장과 53개의 국영농장 및 20개의 국영공장이 1996년도에 들어 278,300개의 개인소유의 가정농장으로 변하고, 약 92%가 사유화 되었다. 사유화 방식은 개인농장, 개인기업형, 주식형 협동농장법인으로 나뉘어 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규모 농업농장은 중,소규모화 되면서 밀을 비롯한 작물의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한편, 작물을 재배하던 농민들이 축산업으로 전환하면서 1990년이전까지 자급자족하던 농업생산물을 현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했다. 이러한 배경속에 최근 몽골정부는 녹색혁명이라는 농업정책을 전개하며 농업발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1. 서론

몽골은 1989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몽골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및 경제적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몽골의 정책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구소련의 와해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 변화는 1992년 6월 민주총선에 의해 집권 인민혁명당이 들어서면서 몽골의 정책은 개혁, 개방주의 형태를 취하고, 농,목축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두드러지고 있다(채재천 외, 1997).

몽골은 구소련의 와해전까지 구소련 및 동구경제 상호원조위원회(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이라고도 함)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몽골의 산업구조는 독립이후부터 지금까지 농,목축업에 크게 의존해 오

고 있다. 때문에 국내적으로 농,목축업을 바탕으로 한 가공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고 주로 CMEA圈을 통해서 산업을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농목축 산업구조속에서 몽골은 1990년대들어 축산업의 생산규모는 커지고 있으면서도 버터등의 낙농제품의 수입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 경작지가 줄어들고 밀 등 곡물의 수확량도 줄어들면서 곡물의 수입의존도도 더 커지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 Industry, 1998).

한편, 최근 몽골은 토지법의 제정등으로 농민들에게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는 등 사유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또한 몽골 정부는 여러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농업 생산방식의 현대화와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 자본의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몽골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 볼 수 있다. 몽골은 그 전성기인 원나라시대에 고려를 침략하여 우리 문화에 몽골 문화의 영향을 크게 미쳤을 뿐 만 아니라, 당시 많은 고려 여인들을 볼모로 잡아가 고려인의 혈통을 이어 받으면서 인류적, 문화적으로 우리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우리 한국인들이 몽골 사람을 처음 만나면 마치 우리의 시골분들을 만난 듯한 묘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한 교수는 “몽골과 한국이 정식으로 수교되면 몽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몽골을 가장 관심있게 연구할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박원길, 1996).

이와같은 배경에서 볼 때 몽골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불러 넣어 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몽골의 역사, 문화 및 어학과 관련한 연구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몽골 사회 및 경제적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몽골의 농업정책과 농업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몽골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이룩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의미에서 최근 몽골의 농업정책과 농업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몽골의 농업발전과 정책변화

1. 1924년 이전 농업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으며, 몽골의 유목생활은 4500-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Tumurjav, 1989, p.3). 몽골은 1924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전까지는 유목을 중심으로 한 봉건주의 체제하의 농업만이 유지되었다. 비록 중국의 지배권에 있었다고 하지만 경제생활구조는 라마 사원이 중심이 되어 승려층과 유목민의 목축산업 구조로 발달했다. 이들의 목축생활은 유목형태로 가축을 기르며, 고

기와 우유를 마시고, 양모와 가죽으로 옷과 신발을 만들어 입었고, 극히 제한된 생활용품만 제조해 살았다. 상거래라곤 생산한 가축과 생필품과의 물물 교환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봉건적 유목민 중심의 사회에서는 정주생활이 발달하지 못했고 도시를 건설하고, 발농사를 짓으며 농산물 가공등 제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2. 1924년-1940년: 자연 사업체(자급영농)시기

몽골은 1921년 인민혁명을 거쳐 1924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련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다. 몽골 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초기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했으나, 1928년 인민혁명당 제 7차 대회를 계기로 국유화 정책을 취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구조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 구조체제는 물가상승과 국민생활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면서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했고, 급기야 1932년 국유화조치를 취소하고 다시 시장경제 정책의 환원을 단행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몽골 혁명지도자 초이발산에 의한 새로운 인민혁명당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또다시 토지 등의 국유화 정책과 더불어 중앙계획정책이 단행됐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가축의 소유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었으며 다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국가 경제의 주 산업은 여전히 목축업이었으며, 중앙정부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아울러 식량배급제와 농산물 할당제 등 계획경제정책하에 농업이 주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업은 농업 외에도 제조, 무역, 운송, 판매, 통신 분야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극히 낙후했으며 기본적 산업 근대화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었다. 농촌경제는 여전히 유목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으며 이 체제는 1940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유목 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주로 가축을 사육하며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농업방식이고, 자본이 영세하고 사육의 기본시설도 매우 부족하였다. 이 시기의 농업관련산업은 각 가정에서 생산되는 가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기, 가죽, 털, 우유 등을 가정 중심의

단순 가공과 국가의 주도하에 대도시 중심의 생산가공 공장이었다. 그리고 국경지대 농촌에서는 생산품을 팔고 그 대금으로 차, 밀가루, 담배, 천 등을 받아오는 물물교환 방식이 행해 졌다.

몽골무역기관이 무역을 맡아 수출을 담당했으나 본격적인 무역거래는 194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점차 농업 외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됐으며 통계에 따르면 1919년 국민총생산의 87%가 목축업 수입이었는데, 1940년들어 목축업생산 비율은 61%를 차지하게 된다(Aksoltan, 1985).

3. 1940년-1959년: 사회주의 협동조합 시스템의 초기 단계

194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가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특히 제2차 대전후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조직인 CMEA가 구성되면서 이들로부터의 원조하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목민의 가축사육을 집단화하는 협동조합형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 집단화를 위해서 정부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일정규모로 통합한 “국민생산 단위체”라 불리우는 사회주의 형태의 국영협동조합을 조성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1950년대 중반까지국영의 협동농장이 10개, 쉼(한국에 군 단위에 해당)단위의 농목축업 협동조합이 91개 생겨났다. (Aksoltan, 1985).

쉼단위의 협동조합은 모두 국영이지만 국영농장과 구분되는 것은 국영농장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집단농장 방식이고, 쉼 단위협동조합은 쉼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협동조합형태이다. 그리고 당시 개별 가족형태의 소규모 농장이 209,900개 있었다 (EIU, 1992).

4. 1959년-1989년: 사회주의 협동조합구조의 완성단계

몽골은 1959년 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발전의 결정적인 중요문제의 하나이며 우리의 목표”라고 선언을 하며,

Virgin Land Program이라는 농업발전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몽골농촌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따랐다. 대부분 개인 목축인들 소유의 가축중 78.2%에 달하는 수를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에 편입시키고 사회주의 구조정책을 수립했다(몽골통계청, 1997). 또한 몽골 정부는 CMEA의 원조를 받아 미개척지를 개간하여 경지면적을 확대해 나갔는데 1951년부터 1961년까지 30만 ha를 개간하였으며, 1962년에 이르러서는 1958년 보다 거의 7배에 이르는 농지를 확보했고 수확량은 6.8배의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총 120만ha 농지를 개간하였다.

몽골의 지방행정은 아이막라 불리우는 도아래 시(호트트), 군(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는 인구 6만-7만명, 시는 도청소재지로 인구 1만-3만명, 군은 인구 2,000-6,000명, 그 이하는 우리의 면단위에 해당하는 인구 1,000명이하의 작은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몽골의 지방 행정단위에서 단위별 협동조합이란 쉼단위의 협동조합으로 쉼에 따라서는 한 쉼에 2-3개의 협동조합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행정 단위하에 1960년대 들어 개인 농목축형태가 거의 모두 단위별 협동조합형태로 변화되었고, 몽골에서는 이것을 두고 사회주의 형태의 완전한 승리라고 개가를 불렀다(Zagasbaldan, 1974).

한편 소련 및 CMEA의 원조와 몽골 정부의 보조로 국영 협동농장과 이들 단위 협동조합의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는 가축의 생산량에 의존해 이루어지던 자본의 축적과 산업 발달이 건물, 차량 등 운송수단 및 시설 설비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계화 농업이 되면서 곡류, 감자 등 경작농업도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단위별 농축산업의 기본 자산은 12.6배 증가되고, 평균적으로 각 단위 협동 사업체 당 가축 6만두, 자본금 1,500만 투그릭, 트랙터 44대(15마력 기준), 자동차 15대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각 단위 사업체 당 소득은 7.7배, 구성원들 개개인당 수입은 5.8배가 증가하였다(악솔탄, 1995). 또한 농장의 시설투자가 강화되면서 농업의 기계화가 발전되었고 겨울철과 봄철 목초지의 약 50%와 여

름 및 가을철 목초지의 약 60%의 관개화 시설을 이루었다.

한편, 협동농장의 발달로 농민들의 정주권이 발달되면서 농촌지역의 병원, 학교 등 사회 문화적 환경이 개선되었다. 협동농장이 모두 국영농장인 까닭에 사업의 운영자금은 정부의 예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부의 시설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시설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국영농장의 가축수는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고 다만 외국산 우량가축 등의 도입 및 사육은 원활히 이루어졌다. 또한 단위별 협동사업체의 규모도 확장되어 각 단위사업체당 평균 규모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 약 50명, 농지 10.2ha, 가축 27,300마리, 트랙터 238대(15마력기준), 곡류생산 5,000-10,000톤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표 1)은 1940년대 부터 1990년대 까지의 협동조합의 수를 형태별로 국영의 협동농장 및 사료공장과 쏘단위의 단위별 협동조합 및 단위조합공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영농장의 수는 1940년대 10개에서 1990년 53개로, 단위협동조합은 1940년대 91개에서 1990년 255개 사업체로 늘어났다. 그리고 단위별 협동조합에는 협동농장사업체와 협동공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협동공장은 건축자재들을 공급하는 등 협동농장을 지원하는 물자공급을 위한 협동조합체의 역할을 담당했다.

(표 2)에서 나타난 것 처럼, 몇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몽골의 산업부문은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다. 특히 농목축업 부문은 1940년대에 75.7%를 차지하던 것이 1960년대는 35.5%, 1970년대는 28.2%에서 1990년에 이르러서는 14.4%로 낮아졌다.

표 1. 농축산 협동농장 및 조합의 변화 추이

구 분	1940	1960	1970	1980	1990
국영협동농장	10	25	32	49	53
국영사료공장			10	13	20
단위협동조합	91	354	272	255	255
단위조합공장		17	17	17	17

자료: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국민산업 70년(1921-1991), 울란바토르, 1991, p.40.

표 2. 산업 부문별 생산과 농목축업 비율

(단위: 백만 투그릭, %)

구 분	1940	1960	1970	1980	1990
총 계	955.8	3,581.7	5,752.3	10,895.7	17,752.3
제조업	116.5	715.3	1,875.6	4,845.3	8,774.1
농·목·축·업	724.2	1,272.2	1,622.6	1,746.1	2,551.8
건설	13.8	403.3	567.6	1,317.2	1,793.1
운수	7.8	357.8	555.1	1,191.2	1,697.5
통신	1.3	13.3	42.1	97.4	236.9
조달, 유통, 공급	52.2	763.4	997.5	1,562.7	2,534.6
기타	40.2	56.8	91.8	134.8	164.3
농·목·축·업·생산·비율(%)	75.7	35.5	28.2	16.0	14.4

자료: ソビエト研究所, “日ソ經濟調査資料” (1992)

5. 1990-현재: 사유재산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1989년 소련의 구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면서 몽골의 사회주의체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CMEA를 통한 소련의 원조에 크게 의존해 유지해오던 몽골의 경제체제가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어려워지게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식 협동영농방식에 효율성이 떨어진 것을 인식한 몽골은 사유재산제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1992년 민주선거에 의한 인민공화국이 출범한후 시장경제체제가 본격화 되면서 정부에 의한 중앙계획체제가 각 가정별 사유화 또는 합작 형태의 소유체제로 바뀌고, 개인영농법인체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0년 이전에 255개에 달하던 단위 농목축산업체가 1996년도에 278,300 가정이 사유화된 소규모 축산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화제도와 관련하여 1997년 현재 상업부문에서는 100%, 가축의 사육도 96%가 추진되었다(BOM, 1997).

몽골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신경제 4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이 4개년계획속에는 일반세법, 법인세법 등 세제의 정비와 외자도입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법 제정 등 외자도입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책도 포함했다. 특히 농업투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토지 제공 등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92년 이후 2, 3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몽골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생산(GNP)의 35.2%가 농업 수입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3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수출액은 전체 수출고의 45%에 달하며 그밖의 수출분야도 대부분 농업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가축의 가죽, 모피, 유제품등이며 축산이 전체 농산물 부가가치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있다(몽골통계청, 1993).

III. 몽골 농업의 특징

1. 유목농업

“몽골은 예로부터 굶어 죽는 적은 없었다”는 말이

있다. 넓은 초원과 산간지대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몽골은 흉노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목형태의 농업을 하고 있다. 몽골인들이 유목을 하게 된 이유는 기후 등 자연에 영향이 크다. 겨울이 길고 추우며 물이 부족한 몽골에서는 기후에 따라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면서 축산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몽골은 땅이 광활하여 지역마다 초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목의 형태도 지역권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발달했다. 몽골의 농업아카데미 회원인 N. Jagvaral(Myagmarjav, 1987 p.42)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유목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섯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가. 헤티형

헤티Aimag(道) 유목민의 형태로 이 지역의 유목민은 연 평균 이동횟수가 2-4회이며 이동거리는 10km 미만이다. 하영지(夏營地)는 하곡지(河谷地)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겹을 짓고 가축을 키우는 특성이 있다. 동영지(冬營地)에는 고정가옥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나. 항가이형

연평균 이동횟수 6-8회이며 이동거리는 15-20km 정도이다. 동영지(冬營地)는 계곡의 상류지방이나 그 주변이며 하영지(夏營地)는 산사이에 펼쳐진 넓은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다. 고비형

연평균 이동횟수는 10-15회이며 이동거리는 50-100km정도이다. 이동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동영지(冬營地)는 나지막한 산자락이나 기슭이며 하영지(夏營地)는 약간 탁트인 초원에 자리 잡고 있다.

라. 서부형

연평균이동횟수는 10-15회이며 이동거리는 150km 정도이다. 동영지(冬營地)는 산의 입구처이고 추영지(秋營地)나 춘영지(春營地)는 해발이 높지 않은 초원지대인데 그 초원지에는 돌이 매우 많다. 하영지(夏營地)는 해발이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마. 동부형

연평균 이동횟수는 7-8회이며 이동거리는 30-40km 정도이다. 사계절 모두 광활한 초원지대 사이를 옮겨 다닌다. 이동의 거리나 횟수는 초지의 상태에 좌우받는 일이 많다.

위와 같은 유목형태의 분류외도 그라이보론스키의 분류 형태로 (1)고산지대(서몽골과 헝스걸일대), (2)항가이형태(헨티와 항가이산지 일대), (3)초원형태(중부와 동부형태), (4)고비형태(고비지방), (5)항가이와 고비가 혼성된 형태(산록과 고비가 병존하는 지방)의 다섯가지 분류 형태등이 있다(박원길, 1996, p.35). 그러나 이러한 유목형태는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되기 어려운 농업형태라는 것을 몽골 정부는 이미 인식하고 정주문화를 형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피혁제품과 식료품생산 등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형에 따른 유목민들의 분포는 다른데 유목민 밀도가 높은 곳은 몽골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인 항가이 산맥이며 낮은 곳은 으른고비, 도르노고비, 도르노 아이막(道)등 지역이다.

2. 목축업 중심의 농업

몽골은 국토의 약 90% 정도가 산악지대, 초목지, 그리고 일부 사막 지대로 유목형 목축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하에 축산업이 발달했으며 각 지형에 따른 가축의 분포는 차이가 있다.

표 3. 지역별 가축(1990년도)

(단위: 천두)

지역이름	총가축수	낙타	말	소	양	염소
국가 전체	25856.9	537.5	2262.0	2448.7	15082.9	5125.7
아르항가이	1496.2	2.3	194.4	294.9	814.0	190.7
바양을기	1318.4	10.4	83.1	117.7	797.3	309.9
바양헝거르	1599.1	45.4	103.9	128.2	773.0	548.6
불강	998.2	4.4	122.4	175.0	594.1	102.3
고비알타이	1693.6	52.1	81.6	79.7	978.3	501.9
도르노고비	943.5	60.7	82.9	77.0	538.2	184.7
도르노드]	936.6	13.3	92.0	126.1	661.2	44.0
돈드고비	1505.5	53.7	152.0	93.8	801.3	404.7
잡항	2133.4	15.3	156.5	195.8	1402.9	363.0
으브르항가이	2061.6	31.4	196.3	200.5	1219.9	413.5
오른고비	910.9	127.9	62.5	24.6	284.4	411.4
수흐바타르	1004.7	15.9	118.2	132.2	602.9	135.4
셀렝게	512.5	0.3	33.8	99.2	351.3	28.0
트브	1711.4	9.5	203.3	205.7	1116.4	176.5
웁스	1666.8	40.4	136.7	162.3	1020.2	307.0
흙드	1687.7	37.2	104.2	138.9	913.1	496.2
흙스걸	1871.9	7.1	168.3	322.8	1093.2	280.4
헨티	1498.6	9.9	142.5	197.1	950.2	199.1

자료: 몽골통계청 1995년 가축조사의 연구

(표 3)은 각 도지역별 가축사육수의 분포도이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몽골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은 으브르항가이, 잡항, 흠스걸 아이막 등이며 제일 적은 곳은 셸렝게 아이막이다. 셸렝게 아이막이 유목민과 가축이 적은 이유는 이 지방이 삼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으른고비, 돈드고비, 도르노고비 아이막은 소가 적은 대신 낙타가 밀집되어 있다. 낙타는 북부지대인 셸렝게, 흠스걸, 아르항가이 아이막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지세가 평탄한 초이발산 주변과 수흐바타르 아이막에서는 소를 축산의 기본단위로 삼고 있으며, 북부지방 및 알타이 산맥에 위치한 지방에서도 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를라크는 한냉하고 습한 북쪽의 흠스걸 일대에 편중되어 있지만 고산지대인 고비의 이흐복드산 지에서도 일부 사육되고 있다. 양과 염소는 각 지방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초원이나 고비지대는 양과 염소를 사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많은 농장이 있다. 그러나 몽골의 산림지대에는 양과 염소가 많지 않다. 말은 각 지방에 모두 고루 분포해 있는 편이나 셸렝

게와 고비지방은 그 수가 많지 않다(체렌돌람, 1997).

한편, 농목축 인구는 1990년대 들어 시장경제체제로 들어서면서 변화가 있는데, 1990년 통계에 따르면 축산업 종사자는 149,900명인데 반해 일반 농업 종사자는 27,200명이었다. 그리고 1991년 이후에 들어서 축산업 종사자는 점차 늘어난 반면 농업인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1996년 통계에 따르면 축산인은 358,100명으로 증가되었고, 농업인들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15,000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몽골통계청, 1989-1997). 따라서 축산업 생산에 의한 수입과 농업 생산에 의한 수입 비교에 있어서도 1995년 기준 축산업 총 수입은 약 2,477억 투그릭(1달러=약 810투그릭)인데 반해 농업 총수입은 396억 투그릭으로 농업소득은 축산업 소득의 약 16%에 달하고 있다.

1997년 현재 몽골의 축산은 양, 염소, 젓소 및 비육우, 말 그리고 낙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사육 두수는 약 3,126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1940년부터 1990년까지 연도별 가축별 사육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인구 증가율에 비해 증가 속도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

표 4. 연도별 가축사육수의 변화

(단위: 천두)

연 도	총 계	낙타	말	소	양	염소
1930	23676.2	480.9	1566.9	1887.3	15660.3	4080.8
1935	22595.8	563.0	1788.8	2372.0	13610.1	4261.7
1940	26204.8	643.4	2358.1	2722.8	15384.2	5096.3
1945	20015.6	649.0	2098.1	1994.8	11570.8	3702.9
1950	22702.2	844.2	2317.0	1987.8	12574.6	4978.6
1955	23085.1	879.8	2386.0	1812.3	12559.2	5447.8
1960	23000.5	859.1	2502.7	1905.5	12101.9	5831.3
1965	23834.6	684.7	2432.6	2093.0	13838.0	4786.3
1970	22574.9	633.5	2317.9	2107.8	13311.7	4204.0
1975	24351.5	617.1	2254.6	2427.0	14458.1	4594.7
1980	23771.4	591.5	1985.4	2397.1	14230.7	4566.7
1985	22485.5	559.0	1971.0	2408.1	13248.8	4298.6
1990	25856.9	537.5	2262.0	2848.7	15083.0	5125.7
1996	29300.1	357.9	2770.5	3476.3	13560.6	9134.8
1997	31263.5	355.1	2891.4	3611.7	14148.6	10256.7

자료: 몽골통계청 1989-1998 가축조사

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가축의 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양의 가축 수는 1990년보다 1996년에 그 사육 두수가 줄어들었고, 소와 염소의 사육 수는 늘었다. 특히, 1997년 염소의 사육 두수는 1990년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염소 털인 캐시미어의 가공공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MOA, 1998).

몽골의 목축 사육면적은 평균적으로 가축 한 마리에 2.4ha 목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넓은 땅이라 할 수 있지만, 실은 이곳은 가축의 분포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또 지역에 따라 풀이 자라지 않는 곳이 많아서 결코 넓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시장경제로 인하여 좋은 값을 받고 가축

을 팔기 위하여 도시 근교의 땅에 밀집하여 축산을 하려고 몰리는 경향이 있어 도시 근교지 목초지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

몽골의 낙농업은 양, 염소, 젖소의 사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도시 근교에서 발달하고 있다.

1992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화된 농장이 41개로서 이들 농장은 대부분 울란바타르 등 대도시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기계화된 농장에서는 두당 우유 생산량이 일반농가의 생산량보다 많은데 기계화된 농장이 연간 3,700만 리터로 전체 생산량의 약 79%를 차지하고 소규모 일반 농가가 1,000만 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 또한 가축 단위당 우유 생산량도 시설농가는 2,600리터 인데 반해 일반농가는 1,200리터 밖에

표 5. 연도별 몽골의 작물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연도	재배면적(천 ha)						생산량(천톤)					
	곡류	밀	감자	채소	사료	사일리지	곡류	밀	감자	채소	사료	사일리지
1980	575.6	423.9	7.5	2.4	108.5	10.2	259.1	207.2	37.9	26.3	65.5	39.6
1981	542.4	409.7	4.7	2.5	119.8	14.0	343.8	295.5	40.4	29.1	136.2	114.9
1982	529.1	430.9	7.1	2.8	88.4	14.1	551.3	439.6	75.1	36.1	160.8	146.1
1983	586.5	444.2	9.5	2.8	107.2	14.8	812.8	547.6	97.5	34.3	351.2	354.4
1984	619.6	460.7	9.7	2.9	124.7	14.5	586.2	446.0	112.0	34.2	159.1	195.6
1985	634.6	460.7	9.0	3.0	115.2	18.2	890.2	692.3	106.3	36.7	278.5	313.1
1986	631.5	466.2	9.8	3.5	133.5	21.3	869.6	663.8	123.9	43.8	294.2	248.1
1987	523.0	467.8	11.1	3.6	127.4	27.3	689.7	543.8	138.0	45.7	316.3	276.1
1988	641.9	491.0	11.8	3.6	134.0	27.6	814.4	672.0	97.9	51.2	220.7	290.8
1989	673.9	530.2	11.5	3.7	109.8	28.5	839.0	686.7	148.0	54.9	225.5	288.1
1990	653.9	532.6	11.8	3.3	81.9	26.5	721.5	598.9	129.2	35.4	223.9	273.9
1991	917.5	534.2	9.3	2.3	65.0	15.0	596.2	539.1	92.1	22.4	83.0	116.0
1992	592.8	525.0	8.2	1.9	44.4	14.0	493.8	450.9	76.9	14.6	107.1	84.6
1993	504.2	466.8	8.5	2.9	32.1	8.0	480.1	448.7	58.4	23.0	67.4	46.4
1994	390.9	377.7	7.4	2.5	26.0	6.4	330.8	321.8	55.0	23.0	59.8	39.7
1995	449.1	429.5	7.8	2.7	10.9	-	330.7	321.9	54.0	22.8	29.1	-

자료: 몽골의 경제, 사회 통계자료집, 1996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유의 소비량은 수도인 울란바트르에서 국가 총 생산된 우유의 80%를 소비하고 있다.

목축업 수입은 농업 전체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총 목축 수입에 대한 주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양 36.1%, 염소 30.6%, 소 20.5%이다. 그리고 최근 고급 양모인 캐시미어 염소의 털은 목축가의 가장 큰 소득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96년도 축산 총 소득은 551억 투그릭이다.

3. 일반 농작물 경작의 취약성

1959년 농지개간정책후 밀을 비롯한 곡류와 감자, 채소등 농작물 생산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곡류중 밀의 재배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농경지는 약 137만 ha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경작면적은 약 44만 ha로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이 농경지중 35,500ha만 미비하나마 관계시설이 되어 있어 1ha당 곡물 생산량은 1.1톤에 이르는 저조한 실정이다.

(표 5)에 따르면 1995년도 곡류의 재배면적은 1991년도에 비해 약 51%가 감소했고, 수확량도 약 26만 5천톤이 감소했다. 그리고 밀의 재배면적 약 20%, 수확량 41%나 감소했다. 이러한 재배면적과 수확량의 감소는 1990년 까지 밀과 감자는 자급자족했으나 지금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후 대규모 일반 농업농장이 없어지면서 농장이 소규모화 되었고, 국가에서 지원하던 농장 운영이 사유화로 중단되면서 트랙터 등 대형 기계를 쓸 수 없게 되는 등 갑자기 기존체계가 무

너지면서 많은 농장이 폐허가 되다시피했다. 현재 채소, 과일 및 사료는 약 30%정도의 자급을 하고 있다.

IV. 몽골 농업경제의 구조적 변화

1. 산업의 변화

1990년 이전 몽골산업 종사자는 노동자, 조합농민과 공무원으로 단순히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농민들의 구성비는 일반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 수에 비해 목축업에 종사하는 수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전체 산업종사자중 농목축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는 1960년에 60.8%, 1970년 47.4%, 1980년 40.4%, 1990년 33.0%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사유화와 시장자유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1996년도의 목축업 종사자는 1990년도에 비해 무려 약 2.3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 들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대규모 기계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밀과 곡물 위주의 농업이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및 콤파인 등을 운영할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둘째, 농장이 소규모화 되면서 대형기계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셋째, 상대적으로 운영하기 쉽고 경제성이 높은 소규모 가축사육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목축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총생산에서 농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되었다. (표 7)은 국내총생산에서 농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

표 6. 농목축업 종사자 수

(단위: 1천명)

구 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3	1996
농목축업	목축업	227.9	162.0	170.4	151.2	149.9	302.2	358.1
종사자	농업	15.8	14.2	26.6	30.3	27.2		
총 계		243.7	176.2	197.0	181.5	177.1	-	-

자료: 몽골인민공화국의 70년(1921-1990)간의 산업 자료 통계집, 1991, pp.44-45, 몽골통계청의 1996년의 가축조사연구

표 7. 국내총생산에서 농목축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투그릭)

구 분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농 목 축 업	총 액	1344.6	1499.3	1644.9	1591.7	2660.4	14296.4	58335.0	104654.2	157494.5	165133.9
	%	14.3	14.6	15.5	15.2	14.1	30.2	35.1	36.7	36.7	31.0

자료: 몽골의 경제, 사회의 1996년 통계자료집, 울란바토르, 1997년, pp.26-27.

는데, 1991년 14.1%에서 1995년 36.7%, 1996년 31.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80년대까지 급격히 발전해 오던 농목축업을 근간으로 발달했던 사료공장 등의 경공업이 1990년 들어 대부분 공장들이 문을 닫는 몰락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까닭은 첫째, 대부분의 경공업의 원자재가 농축산물이기 때문이고, 둘째, 100% 국영이던 공장과 농장이 사유화되어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많은 공장이 폐쇄되고, 셋째, 대규모 농장이 사라지면서 공장과 국영농장에 종사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대부분 소규모 목축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몽골인민공화국, 1997, pp.91-92). 이러한 이유로 최근 7-8년 동안 농업을 바탕으로한 경공업의 생산량은 20-30% 정도 떨어졌다. 그러나 캐시미어의 가공산업은 발달했는데 이것은 주로 외국 자본에 의한 공장이 세워져 수출 위주의 산업이 육성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몽골 정부는 밀과 곡물 및 채소재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농업육성정책을 펴고 있다. 이 녹색혁명은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외국자본 유치에 의한 농업투자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펼치고 있으며, 특히, 몽골원예연구소라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핵심적 주도 역할을 하고 있고, 몽골국립농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농업교수도 채소 재배기술 보급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농업육성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 농업 인구의 이동

이농현상은 1960년대부터 표면화 되었다. 이 당시

는 정부의 산업인력 양성 차원에서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의 울란바토르는 인구 10만명의 양모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6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농자들은 주로 청년층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렇게 도시로 진출한 인구들은 대부분 다른 산업 사회에 흡수되었다. 농민의 수는 1980년 148,500명이던 것이 1985년 133,400명, 1988년 127,600명으로 점차 감소되었다(몽골인민공화국, 1991).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들어 사유화 정책에 의해 도시 근교에 거주하면서도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증가하여, 1991년 전체 농축산업 종사자수는 가족을 포함하여 247,500명, 1993년 347,900명, 1996년 395,400명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몽골 통계청 통계자료, 1994, 1996.). 특히 도시 근교의 목축산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울란바토르, 다르항, 에르텐트 등 대도시 근처의 쑤(郡)으로 이동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가축 값이 지방의 가축 값보다 훨씬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고 영세인들의 생활대책도 도시나 도시 근교가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최근 2-3년간 농축업 종사자들의 이농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00두 이하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고, 1997년도 상반기 10개월 동안 이들 영세농 496가구 축산농가의 2840명이 읍스(UVS)도를 떠나 중앙으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다(인민일보, 1997). 즉, 100두 이하의 가축 사육자는 생활여건이 되지 않고 더욱 궁핍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3. 농업구조의 변화

1991년 민주화혁명이후 국유재산이 사유화되면서 몽골의 농업구조는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국영농장과 단위별 협동조합체로 구성되어 있던 농업 형태가 1994년에는 사유화된 협동법인체 67,200개, 자영농민 108,000명, 기타기업농 114,000개가 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국영농장이나 단위별 협동농장 대신 278,300개의 농축산업 가정이 생겼으며 이들 중 170,084 가정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도시 근교에서 영농을 하는 형태로 존립해 있다.

또한 사유화의 형태는 개인소유형태의 농장과 주식형 법인이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1996년 통계에 따르면 농업 총 생산량의 90%가 주식형 협동법인체와 개인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수는 30,000개에 달하고 있다(인민일보, 1991, 1997).

1990년 이후 사유화 정책에 따라 각 쏘م 단위의 협동조합이 각 개인 가정에 분할되면서 소규모의 축산농가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도 통계에 따르면 100두 이하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농축가정이 전체 소유자의 66.8%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수는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농업구조면에 있어서의 변화도 크다. 1990년 이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유통은 각 단위별 협동조합을 통하여 수거되고 또 필요한 곡물이나 농자재등이 배급되었다. 따라서 계획 경제상의 유통은 가격 차이와 같은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농축산물은 어디에서건 자유로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간 상인이 생기게 되고, 지역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차이도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시골 지역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해 유통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몽골은 철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철도를 따라 산업이 발전했고, 농산물 가격도 교통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영토는 넓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 중심지에

표 8. 개인소유의 가축이 있는 목가의 분류(1996년도)

(단위: 1천)

가축수에 의한 분류	가축이 있는 목가		가 축	
	수	%	수	%
10두 이하	39,778	14.3	233.1	0.85
11-30두	47,080	16.9	969.0	3.54
31-50두	37,462	13.51	5.54	17.6
51-100두	61,464	22.1	4,224.7	16.53
101-200두	55,383	19.9	7,838.5	28.60
201-500두	32,983	11.8	9,410.5	34.38
501-999두	3,678	1.3	2,298.3	8.40
1000-1499두	445	0.2	496.8	1.81
1500-2000두	32	0	53.2	0.19
2001두 이상	10	0	23.1	0.08
합계	278,315	100.0	27,364.8	100.00

자료: 몽골 통계청의 1996년 가축조사, 울란바토르, 1994년

서 멀리 벗어날수록 농민들은 높은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게 비즈야의 연구에 따르면 1995년도 울란바타르 근처 600km 반경안에 있는 거주자들은 양 1마리를 15,000튠그릭을 받았고, 601km-1,000km 반경안에서는 12,000튠그릭, 1,000km 이상 떨어진 거주자들은 8,000튠그릭을 받고 팔았다. 또한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아이막(道) 주민의 경우 가죽, 양털 등 원자재용 생산품을 먼 아이막(道) 지역의 주민들 생산품 가격보다 15-20% 싼 값에 중간상인들에게 제공하고 물물교환 방식으로 생필품을 받았다 한다(인민일보, 1997, 58호). 이러한 유통구조로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2-3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딴지역의 영세민들은 자급자족을 하지 못할 때 큰 생활고를 겪게된다. 더욱이 사회주의체제때 국가체제로 운영되던 협동조합 위주의 유통체제를 단시간에 바꾸는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중간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영세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편, 가공공장에는 원자재 공급의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캐시미어등 인기 생산품은 일부 유통회사에 의해 미가공 상태로 외국으로 무차별 수출되고 있어 어느정도 국가의 통제 정책에 의한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 소유권의 변화

'시장경제 체제는 반드시 사유재산 형태의 토대위에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몽골 정부는 1991년 7월 "몽골재산의 사유화 사업체"에 관한 최초 법령을 제정하고 1992년부터 농목축업 사업체에 대한 사유화를 시행했다.

목축업은 몽골 경제분야의 기초분야다. 따라서 몽골의 가축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협동조합형태의 농목축산업조합체의 공동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란 것 자체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목축업을 사유화하고자할 때 누가 진짜 사유화의 주체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농목축산업조합체들의 실제적 주도

하에 재산권 소유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모든 농목축산업조합체를 작은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여 재산을 분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개의 작은 주식회사 형태로 나누어진 회사는 존립이 1년도 채 안되어 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렇게 농축인들에게 '자금투자 권리용지'라는 주식을 한 단위 10,000튠그릭(당시 양 한 마리 값)으로 하여 일정규모로 분배했으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주식회사체제는 문제점만 발생시켰다. 더욱이 주식이란 것을 처음 대하는 농민들은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자금투자권리용지'인 주식에 따라 가축을 분양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시골 농민들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종이 조각같이 생각하며 싼 값에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에피소드도 생겼다.

한편, 사유화의 작업 초기에는 농경지에 대한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주거지 등 기본재산만을 사유화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곧이어 조합체 소유의 경작지에 대한 할당 작업을 주식회사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물재배 위주의 협동농장도 수십개의 작은 주식회사 형태로 쪼개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텃'도의 '바잉척트'라는 조합체는 40개의 작은 사업체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협동농장의 경작지는 가축을 분배한 것 같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대규모 농장이 여러 개의 소규모 농장으로 나누어지면서 자립에 문제가 생겼다. 대형 트랙터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한 각종장비, 전문가, 자본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통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재 통합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결국 정부는 농장의 주식만을 소유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농장, 개인농장,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법인체가 탄생했다. 그러나 또한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앞에서 제시한 바 있지만, 몽골의 총농경지 면적은 1989년 837,900ha에 이르렀으나 1996년에는 347,800ha로 그 면적 2.4배나 감소했으며, 작물 생산량은 4배나 감소했다.

몽골의 토지 할당은 엄밀히 말해 사유화가 아니라 장기 임대 방식이다. 할당의 방식은 가축이 있는 사람

에게 사육하는 가축수의 규모와 기준에 방목지를 감안하여 분할했고, 이때 경작지의 경우 대개 주식의 수로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는 폐단을 낳았다. 토지세는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토지를 소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법인은 법에 의한 계약에 따라 토지세를 낸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지세 자체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토지의 임대기간은 4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몽골은 1921년부터 1991년까지 70여년간을 사회주의체제로 유지해 왔다. 특히, 1940년대부터 사회주의 협동조합체제를 도입하여 국가의 기간 산업인 목축업을 육성시켜 왔다. 사회주의 생산체제의 몽골농축산업은 국민생산 단위체의 기본이 되는 쏘단위 협동조합과 중앙 정부의 직접 투자에 의해 운영되는 국영 협동농장과 협동공장체제로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생산 효율성 저하와 구 소련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가축 및 재산 소유의 사유화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의 농업정책과 경제적 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

1990년 255개에 달하던 단위별 농목축조합과 53개 달하던 국영농장, 20개의 국영공장이 1996년에는 278,300 개인 가정의 농장형태로 변했고, 약 92%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사유화의 방식은 개인농장, 목민이라 불리는 협동농장등에서 근무하는 농업근로자 그리고 주식형 농업협동조합체 및 개인기업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대형 국영농장 및 단위별 협동조합이 개인기업이나 주식형 기업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소규모 협동조합체 또는 농장으로 나누어져 대형 장비의 무용지물화 및 자본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많은 농장이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곡물등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경작 면적은 1990

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던 것이 1992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농업 생산량도 줄어들어 곡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편 단위 농업협동조합이 개인 사유화되면서 100두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많은 목축가축이 생겼고 이들은 생계 유지에도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목민들과 교통이 불편한 산간 지대에 위치한 목민들은 농축산물 유통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사회주의체제때 지원받던 생필품의 보조, 의료 및 교육 혜택 등이 적어지면서 생활의 곤란을 더욱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영세 농축가축들은 농목축업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청년층의 이농현상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시골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경제적 유연성을 맺어 줄 중간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즉, 지방의 시장구조와 협동조합을 이용한 유통구조가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형편이다. 특히 사회주의방식의 농업협동조합체제가 아니라 농목축인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운영해 나갈 협동조합을 구축하는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된다.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속에 출발한 몽골의 농촌경제구조의 변화는 자본과 인력 조성 등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시작함으로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빈부의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신정부가 들어서 외국 자본의 유치와 '녹색혁명사업'이라는 새로운 농업정책을 구상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대를 해 본다.

참고문헌

1. 몽골국립농과대학교, 1997, "몽골인민공화국의 목축업 분야구조", 울란바토르, pp.27-28.
2. 몽골 인민공화국, 1992, 몽골인민공화국의 인민생활 70년(1921-1991), p.41.
3. 몽골통계청, 1989-1997, 가축통계, 울란바토르
4. 몽골통계청, 1989-1998, 몽골인민공화국의 경제,

사회발전 통계, 울란바토르

5. 박원길, 1996,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두솔, pp.34-36.
6. 블라디미르초프, 1993, 몽골사회제도사, 주채혁 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7. 우능신문, 1990, "우능신문 1990. 2. 28.일자 50호", 울란바토르
8. 인민일보, 1991, 1997, 인민일보, 1991. 6. 22일자 99호, 1997. 1. 14.일자 9호, 3. 19일자 58호, 11. 12일자, 261호, 울란바토르
9. 체제천, 이동진, 1997, "몽골의 농업", 세계 주용 국가의 농업,
10. 체렌돌람, 1997, "몽골 목축업" 몽골아카데미과학원 보고서 (미간행: 몽골어)
11. A.D.B., 1991, 1992, Asian Development Outlook,
12. Aksoltan, K., 1985, "The Structure of the MPR's Livestock Sector", Ulaanbaatar, 1985, pp.5-8
13. B.O.M., 1997, "Bank Of mongolia, Monthly Staistical Bulletin", 12,
14. E.I.U., 1992-1995, "Country Report: Mongolia"
15. Ministry of Agriculture & Industry, 1998, The Agriculture of Mongolia, Ulaanbaatar
16. Myagmarjav B, 1987, "On the Questions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Stock Feeding Locations" Ulaanbaatar, p.42
17. Tumurjav, L., 1989, "Pasture-land Mongolian Livestock", Ulaanbaatar
18. Zagasbaldan, D., 1985 "MPR-World Economy and Culture" Ulaanbaatar
19. _____, 1974, "The Mordern Working Class of Mongolia", Ulaanvaatar
20. ソビエト研究所, 1992, 日 ソ經濟調査資料